

레이스의 범주와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김희선

한양여자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Category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Lace

Hee-Sun Kim

Prof., Dept. of Textile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University

(2014. 8. 19. 접수; 2014. 9. 26. 수정; 2014. 9.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hand-made and machine-made lace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method and re-make the category and definition of lace to consider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major laces techniques.

The re-made category and definition of the lace is as follows.

The lace usually consists of ground and motifs, however, the techniques of netting and sprang are suitable for making ground than motif, so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them from the category of the lace. Many scholars are excluded openwork embroidery fabric from the category of the lace. But, an openwork embroidery fabric is the basis of a needle point lace called true lace and is consist of motif and ground.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it in the category of the lace. I think it is also appropriate to include in the category of the lace that the eyelet embroidery fabric which mimics the openwork embroidery fabric in the machine. Lace is redefined that a fabric with openwork decoration consists of motif and ground, constructed by a variety of ways such as plaiting, twisting, looping, knotting of threads or embroidering by hand or machine.

The classification of the lace is presented as follows.

Hand-made lace is classified bobbin lace, needle point lace, embroidery lace, knotted lace, crochet lace, and knitting lace. Machine-made lace is classified raschel lace, leaver lace, torchon lace, and machine-made embroidery laces which include tool lace, eyelet embroidery lace, chemical lace, etc.

Key Words: Bobbin lace(보빈 레이스), Needle point lace(니들포인트 레이스), Raschel lace(라셸 레이스), Leaver lace(리버 레이스), Guipure lace(귀피르 레이스)

I. 서론

2011년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세기의 결혼식에서 케이트미들턴 왕세손비는 알렉산더맥퀸 브랜드의 사라버튼이 디자인한 여성스럽고 고

전미 넘치는 레이스 웨딩드레스를 입어 레이스 소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증폭 시켰다. 이처럼 레이스 소재는 전통적으로 웨딩드레스나 이브닝드레스와 같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럭셔리한 감성을 추구하는 의복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Corresponding author ; Hee-Sun Kim

Fax. +82-2-2290-2429

E-mail : sunkim211@hanmail.net

만, 최근에는 여성의 포멀웨어(formal wear)나 캐주얼웨어(casual wear) 등 다양한 복종의 트렌드 소재로써 사용이 급증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크게 선호되고 있다.

레이스(lace)의 사전적 의미는 ‘구두, 코르셋 따위의 끈, 줄라매는 끈, 장식끈’으로 제시되어 있으며(프라임영한사전, 1992), 일반적으로는 ‘실 또는 끈을 꼬거나 엮어 만들며 오픈워크(open work) 장식에 있는 비치는 소재’를 말한다.

과거, 레이스는 다양한 방법의 수공으로 만들어져 일부 상류계층에서 사용되는 고급스럽고 희소성의 가치가 큰 소재였으며, 산업혁명 후 기계의 발달로 다양한 기계제레이스가 생산되어 대중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가공방법이 가미되어 색다른 감성의 레이스가 출시되어 트렌드 소재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레이스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소재이다 보니 레이스를 정의하고 범주를 정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Jennifer Harris(1991)는 레이스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레이스를 정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직조하지 않고 니들이나 보빈세트를 사용하여 실로 고리를 만들고(looping) 엮거나(plaiting), 꼬아(twisting) 오픈워크(openwork) 패브릭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넷(net)를 기본으로 하는 레이스와 유사한 것으로 니팅(knitting), 크로체(crochet), 스프랭(sprang), 마크라메(macrame) 등이 있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레이스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픈워크 패브릭을 만드는 별개의 테크닉으로 보았으며, 니들레이스(needle lace)와 보빈레이스(bobbin lace) 만이 진정한 레이스(pure lace)라고 하였다. Kax Wilson은 레이스는 다양한 장식적 내비침 원단을 일컫는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교차(interlacing), 고리만들기(looping), 꼬기(twisting), 매듭짓기(knotting), 때로는 넷에 수를 놓는 것 까지 포함 한다고 하였다(박남성, 차임선 역, 2000). 이경희(2002)는 레이스란 본래 새끼나 끈을 꼬거나 엮어 만든 비치는 문양의 장식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레이스를 수편과 기계편으로 분류하고 주요 수편레이스는 바늘하나로 사뜨는 니들포인트레이스와 실을 감은 보빈세트를 사용하여 문양을 짜나가는 보빈레이스라고 하였다. 염영숙(2010)은 레이

스란 실을 엮어나 꼬거나 코로 뜨거나 매듭 등의 방법으로 무늬를 나타내며 공간이 많이 비쳐 보이는 장식용 옷감으로, 바탕천 위에 무늬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비침 무늬를 만들어 낸 직물을 말하며 바탕천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자수와 다르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서 레이스에 대한 정의는 광의의 의미로 제시되거나 때로는 협의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어 레이스의 범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최근 패션트렌드정보에 제시된 트렌드 소재에는 귀피르 레이스(guiPURE lace), 크로체 레이스(crochet lace), 라셀 레이스(raschel lace), 리버 레이스(leaver lace), 토손 레이스(torchon lace), 아일릿 자수레이스(eyelet embroidery lace), 메시 레이스(mesh lace), 필레 레이스(filet lace) 등 다양한 레이스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는데 패션업체 종사자들은 물론 텍스타일 원단을 다루는 소재 컨버터나 섬유패션관련 전공자들도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명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수공 및 기계 레이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레이스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구성기법 특징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레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경희(2002)에 의해서 ‘유럽 레이스의 변천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레이스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역사적 고찰을 통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출현한 주요 레이스 기법을 조사하여 레이스의 범주와 정의를 재규정하고 둘째, 문헌 조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레이스의 분류 체계를 세우고 기법 특징 등을 제시함으로써 섬유업체 종사자들이 트렌드 소재로 제시되고 있는 레이스 소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섬유패션 전공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레이스 관련 논문, 문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레이스 정보 및 레이스 상품 정보, 수공레이스 제작 유튜브 동영상, 패션트렌드 정보업체가 제공한 트렌드소재 정보 등을 분석하는 내용 분석 방법(contents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구체적으로 본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레이스의 기원과 현존하는 유물자료 및 레이스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주요 레이스 기법의 출현시기와 발달과정 등을 고찰하여 레이스의 범주와 정의를 재규정 한다.

2.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수공레이스와 기계레이스의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구성기법의 기본 특징을 제시한다.

III. 레이스의 역사적 고찰

1. 레이스의 기원

Edward와 George(1948)는 그들의 저서에서 레이스의 기원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 미개인(primitive people)들이 헤진 옷을 재생할 때 미적인 면을 고려해서 실을 꼬거나(twist), 꿰매서 보수한 것이 레이스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둘째, 성경에는 호머(Homer)에 의해서 만들어진 망(net)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지적하며, 인간은 오래전부터 네트 형태의 어망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레이스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경희(2002)는 문헌연구를 통해 레이스의 기원은 명백하지는 않으나 선사시대의 어망, 수렵망의 제작과 파손된 의복의 보수 또는 자수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하여 Edward 등과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같은 레이스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의 언급을 통하여 레이스는 네트제조 기법과 오픈워크 장식이 있는 자수기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주요 레이스 기법의 출현과 발달

1) 네트(Net)

가장 일찍이 출현한 레이스 관련 패브릭은 네트이다. 네팅(netting)은 매듭짓기(knotting)와 고리만들기(looping)를 포함하는 기법이며(박남성, 차임선 역, 2000), 현존하는 고대의 유물을 통해 네트는 어망, 수렵망 등의 생활도구의 용도뿐만 아니라 헤어장식이나 술 등 의복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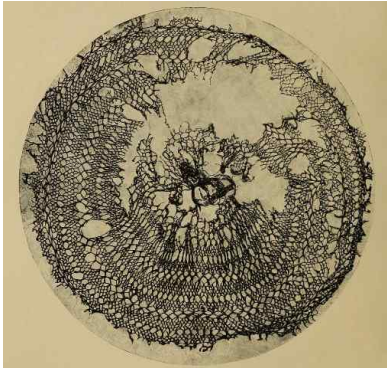
가장 오래된 네트 유물은 B.C. 2500년경 것으로 추측되는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장식적인 메시(mesh) 형태이다. 페루에서도 기원전 것으로 추측되는 네트가 발굴되었는데, 디자인은 물고기, 오리, 퓨마, 콘도르 모티브와 마름모, 네모, 원, 십자, v자 문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비큐나, 울, 선인장 종류의 섬유 등으로 만들어졌다. 페루의 레이스는 오늘날 필레 레이스(filet lace)를 만들 때 사용하는 셔틀(shuttle)과 유사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Edward & George, 1948).

<그림 1>은 중이집트(middle Egypt, BC 21~17세기경) 시기의 것으로 추측되는 네트로 이집트의 로마인 묘지에서 발굴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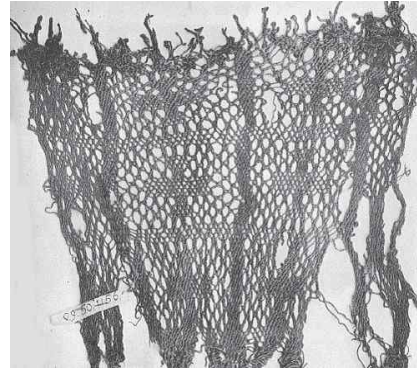
콥트(Copte)는 고대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집트의 그리스도 교도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남긴 AD 3~7세기경 유물에서도 네트류가 발굴되었다. <그림 2>는 AD6세기 경 이집트 콥트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네팅 레이스(Egyptian Coptic netting lace)이다.

2) 오픈워크 자수 레이스(Openwork embroidery lace)

고대의 유물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레이스 관련 패브릭은 오픈워크장식이 있는 자수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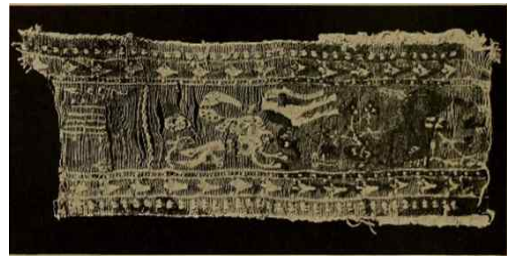
<그림 1> 중이집트(middle Egypt)시기의 로마인모자로부터 발굴된 고대의 망(network)
(출처: A History of Hand-Made Lace, p.2, Jackson. 1900)



<그림 2>AD6세기 콥트의 네팅레이스(Egyptian Coptic netting lace)
(출처: Egyptian lace design 500.
<http://www.pinterest.com/pin/84724036710201383/>)



<그림 3> BC 11~10세기 이집트 테베의 무덤에서 발굴된 사라센 드론워크 린넨 직물
(출처: A History of Hand-Made Lace, p.7, Jackson. 1900)



<그림 4> AD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콥트의 드론워크 린넨 직물
(출처: A History of Hand-Made Lace, p.8, Jackson. 1900)

이는 직물의 경, 위사의 일부를 뽑아내어(drawn work) 성글게 한 후 자수하거나, 경, 위사의 일부를 잘라내고(cut work) 자수하여 오픈워크 장식을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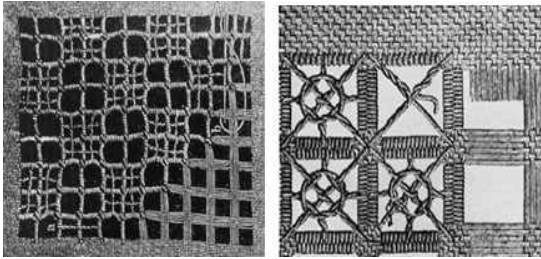
<그림 3>은 BC 11~10세기경 유물로 이집트 테베(Thebe)의 무덤에서 발굴된 오픈워크 장식이 있는 사라센 드론워크 린넨(Saracenic drawn work linen)직물이다.

또한 콥트의 유적에서도 드론워크 자수직물이 발견되었는데, 재료는 주로 마, 울 등을 사용하였으며 패턴은 대부분 기하학적 문양이다. <그림 4>는 AD 6세기 경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콥트의 드론워크 린넨 직물로 위사의 일부를 뽑아내어 레이스의 그라운드(ground)와 같이 성글게 만든 후 경사 위에 니들워크 스티치를 한

것이다(Jackson, 1900).

중세시기인 AD12, 13세기의 유럽에서는 레이스가 지위가 높은 성직자의 복식과 종교의식용품 등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수도원의 수녀들이 주로 만들었으며 ‘레이스 만들기’는 수녀의 중요한 일과였다. 이 때 만든 레이스는 드론워크, 컷워크 기법으로 만든 오픈워크 장식이 있는 자수 레이스가 주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문화와 무역의 전성기를 맞은 이탈리아에서는 16세기경 베네치아(Venice), 제노아(Genoa) 등 항구무역도시와 밀라노(Milan) 등을 중심으로 레이스 제작이 활성화 되어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복식은 귀족을 중심으로 칼라, 소매 등에 레이스를 사용하여 섬세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그림 5> 오픈워크와 자수하여 만든 레티첼라 제작 기법
(출처: Leaver Lace, p.3, Edward & George, 1948)



<그림 6> 1570년 작품 레티첼라로 장식된 슬리브
(출처: A History of Hand-Made Lace, p.13, Jackson, 1900)



<그림 7> 1613년 작품 레티첼라 칼라
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소장
(출처: <https://chandlerozconsultants.wordpress.com/>)

레이스 산업을 더욱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16세기 중기 경 베네치아에서는 컷워크와 드론워크 기법으로 만든 오픈워크 자수레이스가 크게 유행하였다. 직물의 경, 위사의 일부를 뽑거나(drawn) 커트(cut)하여 공간을 만들어 가장 자리는 울이 풀이지 않도록 버튼홀 스티치로 감치고 공간부분에는 실을 걸어 다양한 버튼홀 스티치로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 칼라, 네크라인, 소매부리, 밑단 등을 장식했는데 이것을 작은 격자라는 의미를 가진 레티첼라(Reticella)라고 불렀다.

<그림 5>는 오픈워크와 자수하여 만든 레티첼라 제작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6>은 1570년 경 린드로 다 폰테 바사노(Leandro Da Ponte Bassano)의 로마 전설 속에 나오는 정녀 루크레티아(Lucretiac)를 그린 작품으로 레티첼라로 장식된 소매부리 부분을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7>은 1613년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공주(Princess Elizabeth Stuart)의 초상화로 16세기 레티첼라 보다 더욱 정교한 문양으로 만들어진 레티첼라 칼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오픈워크 자수레이스는 고대로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그 역사가 장구하며, 자수의 발달과 함께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며 장식적으로 발달하여 16세기 후기에 유행이 그 정점에 달하였다.

3) 스프랭(Sprang)

스프랭은 일반 네팅과 외관은 유사해 보이지만 경사(warp thread)만을 가지고 구성된 것으로

제작기법이 전혀 다르다. 스프랭이란 명칭은 스웨덴어인 스프랑닝(sprangning)에 어원을 둔 용어이다. 가장 오래된 스프랭 유물은 BC 1400년 경 것으로 추측되는 헤어넷(hair net)으로 덴마크의 습지에서 발견되었다. 스프랭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19세기 까지 찾아 볼 수 없으나,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시기의 스프랭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집트에서는 BC 1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것과 콕틱 초기인 AD 3세기경의 것, 페루의 무덤에서 BC 1100경 것, 노르웨이에서는 AD5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랭이 발견되었다. 그밖에 스위스, 고대 로마의 도시들,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대륙,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적 등에서도 스프랭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프랭의 출현 시기는 네팅의 출현시기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북유럽에서 출현하여 남쪽으로 전파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물자료를 통하여 일찍이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Wikipedia, 2014; 임영자 외, 2004).

4) 마크라메(Macrame)

마크라메는 네팅기법 중 하나인 매듭짓기(knotting)가 발전된 형태이다. 마크라메 스타일의 매듭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가장 오래된 유물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조각에서 볼 수 있다. 엮거나(plaiting), 꼰(braiding) 것 같은 술 fringe) 장식이 있는 의복이 조각상에 새겨 있다(Peter the knotter, 2012). Eirian Short(1979)는



<그림 8>BC1400년경 스프랭헤어넷 National Museum, Copenhagen, Denmark소장
(출처:Nicolette Cook. (2013.7). An Art Conservator's Journal.
http://insidetheconservatorstudio.blogspot.kr/2013_07_01_archive.html)



<그림 9>16세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폰토 아 그라포
(출처:Peter the Knotter. (2012.3). A Brief History of Macrame.
[http://macramecollective.com/news/?p=553.](http://macramecollective.com/news/?p=553))

그의 저서에서 마크라메는 중동에서 출현하여 BC 9세기 이후 기능성 뿐 아니라 장식성이 강조되어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에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언급하였다.

마크라메는 AD 8세기 무슬림인 무어(Moor)인의 스페인 정복 후, 스페인에 전해졌으며 그 후 특히 이탈리아의 리구리아(Liguria)의 지역으로 전파되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13세기 말 경 십자군이 아랍 국가로부터 되돌아오는 길에 가지고와 이탈리아로 유입되어 유럽의 북쪽으로 확산되었다는 설도 있다. 마크라메는 스페인어이며 ‘줄무늬 수건’, ‘장식 프린지(fringe)’, ‘수놓은 베일’을 의미하는 아랍어 마그라마(migramah (مقرفة))가 어원이라고 한다(Wikipedi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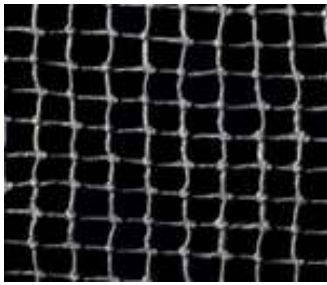
16세기에 마크라메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폰토 아 그로포(Punto a groppo)’라고 알려진 매듭짓기 기법으로 만든 레이스로 탄생되어 제노아의 특산품이 되었다. 폰토 아 그로포는 이탈리아어로 너티드 레이스(knotted lace)라는 뜻이다. 이탈리아에서 16세기에 만들어진 폰토 아 그라포는 프린지를 묶고(tying), 매듭짓고(knotting), 트위스팅 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다른 도구 없이 전적으로 손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문양은 기하학적인 패턴이었는데 때때로 도식화한 인물상이 포함된 것도 있었다고 한다(Peter the knotter, 2012).

5) 크로셰(Croch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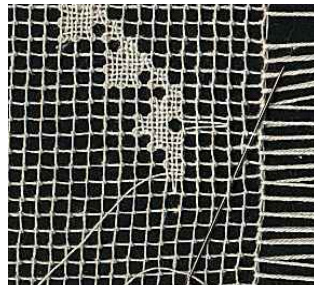
크로셰는 루프(loop)로 만드는 네트기법으로부터 분화된 것이다. 크로셰는 프랑스어로 ‘작은 갈고기 (small hook)’라는 뜻으로, 끝이 갈고리모양인 코바늘로 고리를 연결시켜 오픈워크 패브릭을 구성한다(Wikipedia, 201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바늘뜨기라고도 부른다.

고고학적발굴에 의하면 도구 없이 손가락으로 루프를 만드는 ‘손가락 크로셰팅(finger crocheting)’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박남성, 차임선 역, 2000), 코바늘을 사용하여 만드는 방법이 언제부터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크로셰의 어원이 스칸디나비아어인 크루크(crook)에서 유래된 만큼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배경일 것이라는 설과, 르네상스 시대에 고운 네트에 섬세한 후크를 사용하여 체인스티치를 만드는 자수레이스의 일종인 탬버레이스(tamber lace)에서 사용한 코바늘을 응용하여 탄생한 것으로도 추측하고 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 알려졌고 아일랜드에서 1840년대 크게 발전하여 이를 특히 ‘아이리쉬 크로셰(Irish crochet)’라고 부른다. 아일랜드 이민자에 의해 1930년대 미국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다.



① 사각형의 매듭네트 만들기



② 넷트 위에 다닝스티치로 자수



③ 완성된 필레 레이스

<그림 10> 필레 레이스 제작 순서

(①③출처: Lorelei Halley. (2012.7). Make Lace. <http://lynxlace.com>)

(②출처: filet lace. (2014. 8).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ilet_lace)

6) 필레 레이스(Filet lace)

필레 레이스는 장식 네트의 한 형태로서, 어 망을 만들다가 어느 시점부터 자수기법을 융합하여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필레 레이스는 네팅과 자수 기법이 결합하여 개발된 산물인 것이다. 언제부터 필레 레이스를 만들었는지 알려진 바 없으나 필레(filet)는 네트워크(network)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filatoriumfh’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Ingram (1922)은 1295년 초기에 세인트 폴 성당(St. Paul’s Cathedral)에 네트에 자수를 놓은 쿠션이 있었으며, 14세기에 이런 작업을 ‘opus araneum’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Jourdain(1904)은 엑스터 성당(Exeter Cathedral)에 1327년 경 것으로 여겨지는 필레 레이스 조각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필레 레이스는 르네상스시대에도 크게 유행하여 만들어졌는데, 1587년 출판된 페데리코 빈치올로(Federico Vinciolo)의 자수 패턴 책에는 필레 레이스를 위한 약 60 여개의 패턴이 제시되어 있다(Wikipedia, 2014).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필레 레이스는 13세기 전후에 개발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꾸준히 계승 발전된 테크닉으로 여겨진다.

오리지널 필레 레이스의 외관은 크로셰 기법으로도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대에서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크로셰 기법으로 더 많이 제작되고 있으며 이것을 ‘필레 크로셰’라고 부른다.

7) 보빈 레이스(Bobbin lace)와 니들 포인트 레이스(Needle point lace)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은 보빈 레이스와 니들포인트레이스를 진정한 레이스(true, pure lace)라고 규정할 만큼 이들은 레이스 중의 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빈레이스와 니들포인트레이스에 대하여 출현시기와 발달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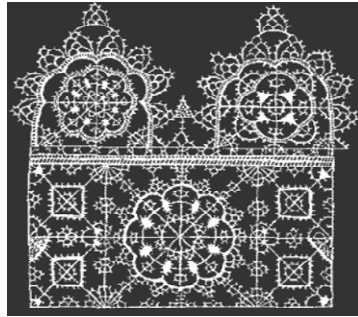
(1) 보빈레이스(Bobbin lace)

보빈 레이스는 보빈 세트(bobbin set), 필로우(pillow), 핀(pin)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만드는 레이스이다. 보빈레이스는 필로우 위에서 보빈에 감긴 여러 가닥의 실을 편을 꽂아 고정하면서 트위스팅(twisting)하고 플레이팅(plaiting)하여 만든다. 따라서 필로우 레이스(pillow lace)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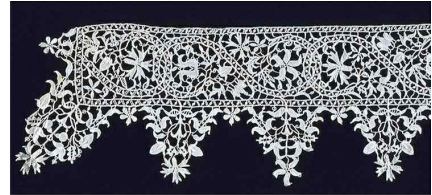
콥트(Cope)의 AD 3~7세기경 유물에서 정교하게 만든 보빈레이스 조각과 실을 감은 보빈세트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보빈레이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필로우와 핀 대신 실을 따로따로 걸 수 있는 나무못(pegs)이 있는 나무 프레임(wooden frame)이 발견되었다. 이는 스프랭을 만드는 도구와 유사한데, 이로써 보빈레이스 제작 방법은 오늘날의 것과는 다소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클루니(Cluny) 박물관에는 콥트의 보빈레이스 조각이 소장되어 있는데, 1860년 경 프랑스 동부 도시인 클루니에 위치한 베네딕트 수녀원에서 만든 보빈레이스



<그림 11> 토손 레이스
(출처: Torchon lace. (2014).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Torchon_lace



<그림 12>푼토인 아리아(Puntò In Aria)
(출처: Lace. (2007). http://www.geocities.ws/step_through_time/a_step_through_time_lace.html)



<그림 13>Needle lace border 1600 - 1620,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소장
(출처: Lace. (2007). [http://www.geocities.ws/step_through_time_lace.html](http://www.geocities.ws/step_through_time/a_step_through_time_lace.html))

인 클루니 레이스(Cluny lace)와 모양이 흡사하다고 한다(Edward & George, 1948).

앞서 언급한 대로 이집트의 콕트는 로마제국의 지배와 영향을 받은 문화이다. 따라서 학자들 중에는 보빈레이스의 출현 시기를 고대 로마 제국 시대로 추측하고 있다.

13세기 경에 보빈레이스는 이탈리아 제노아의 여자수도원에서 만들어져 교회의 패포(掛布)나 수도사 의복의 일부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두산백과, 2014). 이처럼 16, 17세기 유럽에서 보빈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부터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만들어져 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보빈레이스로는 앤트워프 레이스(Antwerp lace)와 토손 레이스(torchon lace) 등을 들 수 있다.

앤트워프 레이스는 현재의 벨기에 지역인 플랑드르의 앤트워프(Antwerp)에서 만든 보빈레이스로 오래전부터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앤트워프의 보빈레이스는 여섯쪽지의 별모양의 그라운드에 꽃병(flower pot) 모티브가 특징이다. 17세기에는 앤트워프의 인구의 약 50%가 레이스 제작에 참여했다고 한다. 앤트워프 레이스는 반복된 꽃병(pot) 모티브 때문에 네덜란드어로 'pottenkant' 또는 'potten kant lace'라고도 불렀다고 한다(Wikipedia, 2014).

토손 레이스 역시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기록은 없으나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지에서 많이 만들어 온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토손(torchon)이란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주'라는 의미로 'beggar's lace'라고도 부른다. 토손 레이스는 조잡하고 강하며 간단한 기하학적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1~2인치(2.5~5cm)폭의 일직선의 테이프 형태로 만들어 졌다. 주로 가장자리 장식이나 사업용으로 리넨 또는 면 언더웨어에 주로 장식하며, 질기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였기 때문에 중산계층이 사용하였다. 심플한 형태의 레이스였기 때문에 19세기 이래로는 일반적으로 레이스 만드는 사람들이 처음 레이스를 배울 때 만든다. 적은 수의 보빈으로 만들 수 있으며 다른 보빈레이스 만드는 실 보다 두꺼운 실을 사용하므로 배우기 쉽기 때문이다(Wikipedia, 2014).

20세기 초 기계제 토션 레이스가 생산되었는데 거의 수공레이스랑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외관이 흡사하다.

(2) 니들포인트레이스(Needle point lace)

니들포인트레이스는 바늘과 실을 사용하여 다양한 버튼홀 스티치를 만들어 창조된다. 니들레이스(needle lace)라고도 부른다.

16세기 말경 베네치아에서 레티첼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니들포인트레이스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기본 바탕 직물 없이 실과 바늘만으로 기초 실을 지지대로 하여 공중에서 자수(stitch in air)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공중자수라는 의미인 '푼토 인 아리아(Puntò in aria)'라고

불렀으며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레티첼라는 직물을 바탕천으로 하여 구멍을 만들고 자수한 오픈워크 자수직물인데 반하여 폰토 인 아리아는 직물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실과 바늘만으로 만든 순수한 니들레이스인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진정한 레이스(true lace)라고 부르는 보빈레이스와 니들포인트레이스 중 보빈레이스의 출현 시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반해, 니들포인트레이스는 16세기 후반에 출현한 기법이라는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것이다.

베네치아의 자수연구가 페데리코 빈치올로가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태생으로 당시 프랑수아 앙리2세의 왕비가 된 카트린 드 메디치에게 바치는 자수 도안집이 157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출간되었다. 1658년까지 판을 거듭하여 프랑스 궁정의 여성들과 귀족계급에 널리 애용되었으며, 카트린 왕비도 자수를 취미로 하여 이탈리아 메디치가에서 프랑스로 시집갈 때 자수 직인을 프랑스 왕실로 데리고 갔다고 전해진다(이경희, 2002). 이 도안집에는 레티첼라, 폰토 인 아리아의 도안은 물론이고 필레 레이스와 다양한 화이트워크 자수도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16세기, 17세기 중엽까지는 자수의 유행과 함께 레티첼라와 같은 오픈워크 자수기법과 순수 니들포인트레이스 그리고 필레 레이스, 보빈레이스 등 다양한 레이스 기법이 동시에 유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2>는 폰토 인 아리아의 패턴으로 이탈리아 디자이너 페데리코 빈치올로에 의해 쓰여진 패턴북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디자인은 직물을 기초로 한 레티첼라의 기하학적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3>은 17세기 초에 제작된 니들포인트레이스로 아라베스크의 식물 문양이 아름답고 정교하여 기하학적 문양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3) 세기별 유행한 주요 보빈레이스와 니들포인트레이스

유럽에서 니들포인트레이스와 보빈레이스는 17, 18세기에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디자인이 출현하여 레이스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레이스 머신의 발명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계제 레이스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나, 레이스 머신의 개발과 보급이 충분치 않아 18세기에 유행했던 수공레이스가 다시 부활하거나, 기계제 그라운드에 수공으로 만든 모티브를 혼합한 디자인 등이 등장하였다(이경희, 2002).

20세기에 초에도 기계제 레이스와의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도 수공레이스가 만들어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수공레이스 산업은 쇠퇴하게 되고 기계제 레이스가 대중화되었으며 수공레이스는 오늘날까지 일부 산지와 매니아들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기계제 레이스 역시 유행기의 보빈레이스와 니들포인트레이스를 모방 생산하는 경향이 있어, 17, 18, 19세기에 유행했던 주요 레이스의 명칭과 디자인특징 및 주요 생산지 등을 분석 제시해 보았다.

① 1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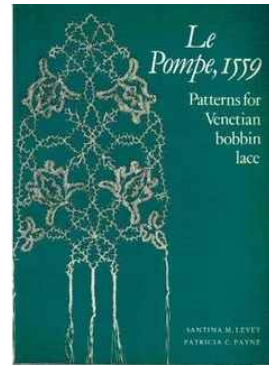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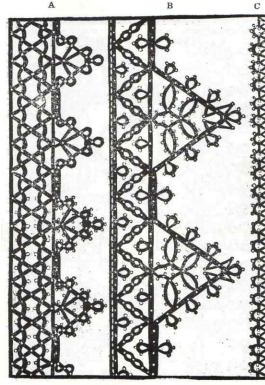
16세기 말 니들포인트레이스의 주요 생산지는 폰토 인 아리아를 개발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였다.

16세기, 보빈레이스는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었는데 특히 플랑드르(Flandre, Flemish, 북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 걸친 지역)와 이탈리아의 밀라노, 제노아, 베네치아 등이 중심지였다.

16세기 중엽,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레티첼라’가 유행할 당시, 보빈레이스 역시 베네치아에서 많이 만들어져 의복이나 인테리어 제품에 사용되었는데, 1559년에 ‘Le Pompe’라는 보빈레이스 도안과 기법이 상세히 기록된 책이 발간될 정도로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4>에는 1559년 발간된 ‘Le Pompe’ 원본과 수록된 보빈레이스 패턴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5>는 1983년 Santina와 Patricia에 의해 재발간된 ‘Le Pompe’이다.

② 17세기

17세기에는 이탈리아와 플랑드르가 여전히 주요 레이스 산지였으며, 이에 프랑스가 가세하였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기하학적문양을 특징으로 했던 니들포인트레이스인 폰토 인 아리아



<그림 14>1559년 발간된 'Le Pompe' 와 보빈레이스 패턴
(출처: Lace. (2007).

http://www.geocities.ws/step_through_time/a_step_through_time_lace.html

<그림 15>1983년 재발간된 'Le Pompe'
(출처: www.amazon.com)

를 발전시켜 줄기, 잎사귀, 꽃 문양 등으로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며 화려한 그로포양(Gros point)을 개발하였다. 그로포양은 모티브의 외곽을 도드라지게 하여 입체감 즉 릴리프(relief)를 주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로포양은 포양 드 베니스(Point de Venise), 그로 포양 드 베니스(Gros point de Venise), 베네치안 니들 레이스(Venetian needle lace)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Wikipedia, 2014).

릴리프는 니들포인트레이스는 물론이고 보빈레이스에서도 표현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니들포인트레이스에서는 코르도넛(cordonnet), 보빈레이스에서는 김프(gimp)라고 부른다(Lorelei Halley, 2012).

17세기, 보빈레이스로는 밀라노 레이스(Milanese lace)와 밀알 문양이 특징인 포양 데스프리라고 불리는 제노아의 보빈레이스가 인기였으며, 특히 얇고 가벼운 플랑드르의 보빈레이스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플랑드르 레이스(Flandre lace)는 섬세하고 기교적인 아라베스크 문양, 코가 조밀한 메시 그라운드, 스칼럽 모양의 가장자리가 특징이었는데 당시 네덜란드의 북의 특징인 플랫 칼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17세기에 프랑스는 재상 콜베르가 1665년에 아라스, 랑스, 스당, 아랑손 등의 도시에 니들포인트레이스와 보빈레이스의 생산지를 만들어 베네치아와 플랑드르로부터 우수한 기술자를

모아 기법을 가르치게 했다. 처음에는 베네치아의 그로포양을 흉내 내다가 후에는 모티브 사이의 연결공간을 더 넓게 하고 경쾌한 디자인의 포양 드 프랑스를 개발하였다. 포양 드 프랑스는 베네치아의 그로포양의 인기를 넘어서게 되고 오히려 이탈리아에서는 포양 드 프랑스를 흉내낸 포양 드 네쥬, 포양 프라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니들포인트레이스의 중심지는 이탈리아로부터 프랑스로 옮겨졌다(이경희, 2002).

③ 18세기

18세기의 레이스는 더욱 섬세하고 우미하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는데, 18, 19세기의 수공 레이스 생산의 중심지는 프랑스, 벨기에, 영국이었다.

프랑스의 아랑송(Alençon), 아르장탄(Argeantant), 샹티(Chantilly), 발랑시엔느(Valenciennes)와 벨기에의 브리셀(Brussels), 메클린(Mechlin), 방슈(Binche), 영국의 호니톤(Honiton), 베드포드셔(Bedfordshire), 버킹엄셔(Buckinghamshire) 등이 주요 산지였다. 각 산지에서 생산된 레이스는 각각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산된 산지의 이름이 레이스의 명칭이 되었다.

④ 19세기

19세기 프랑스의 바이유 공장에서는 샹티와 릴 레이스 기법을 혼합한 디자인을 고안하였으

며, 분업하여 레이스를 부분으로 나누어 만들고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근대적인 공장 생산 방법을 도입하였다. 기계제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크고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이었는데 이를 바이유 레이스라고 불렀다. 또한 19세기 중엽까지는 니들포인트레이스의 기계화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아랑손 레이스가 다시 유행하였다. 샹티 레이스도 인기가 있었는데 주로 검정색의 견사로 제작하여 장방형과 삼각형의 스카프와 술 그리고 양산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프랑스 동부 도시인 클루니에 위치한 베네딕트 수녀원에서 만든 보빈레이스인 클루니 레이스(Cluny lace)도 인기가 있었다.

19세기 벨기에에서는 기계제 네트예 보빈과 니들 기법으로 모티브를 만들어 아플리케한 브뤼셀 아플리케 레이스와 얇은 기계제 그라운드예 니들포인트의 꽃 모티브를 아플리케 한 포앙드 가즈 등 여러 기법을 혼합한 레이스가 인기였다(이경희, 2002).

19세기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이어 호니톤, 베드퍼셔, 버킹엄셔 등에서 보빈레이스를 꾸준히 만들기는 하였지만, 상업적으로는 기계제 레이스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 시기였다.

<표 1>은 16세기부터 19세기의 유럽에서 유행했던 주요 보빈레이스와 니들포인트레이스를 시기별로 명칭과 디자인 특징 및 생산지역 등을

<표 1> 16~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주요 보빈레이스와 니들포인트레이스

시기	명칭	지역	특징	종류
16C	푼토 인 아리아 (Punto in aria)	베네치아 (이탈리아)	- 최초의 니들 포인트 레이스 - 기하학적 패턴	니들 레이스
	보빈레이스 (Bobbin lace)	플랑드르, 밀라노, 제노아, 베네치아 등	- 니들포인트레이스 보다 제작비가 저렴 - 니들포인트레이스의 외관을 모방	보빈 레이스
17C	그로포앙 (Gros point)	베네치아 (이탈리아)	- 포앙드 베니스(Point de Venise) 그로 포앙드 베니스(Gros point de Venise) 베네치안 니들 레이스(Venetian needle lace) 등으로 부름 - 기하학적 문양은 사라지고 잎, 줄기, 꽃 문양 등 화려하고 정교함 - 모티브의 외곽을 강조한 릴리프(relief)장식	니들 레이스
	밀라노 레이스 (Milanese lace)	밀라노 (이탈리아)	- 왕관과 태양, 로터스, 망고 모티브 등 - 사변형의 메쉬 그라운드 - 불연속으로 제작	보빈 레이스
	포앙 데스프리 (Point d'esprit)	제노아 (이탈리아)	- 금속사나 굵은실 사용 - 밀알모양 모티브 - 가장자리 스칼럽 모양	보빈 레이스
	플랑드르 레이스 (Flandre lace)	플랑드르	- 얇고 가벼움 - 섬세하게 도안화된 아라베스크 모티브 - 코가 조밀한 메시 그라운드 - 스칼럽 모양의 가장자리 -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제작	보빈 레이스
	포앙 드 프랑스 (Point de France)	스당, 루당, 아랑손 등 (프랑스)	- 1685-1710 동안 유행 - 그로포앙을 흉내 내었으나 릴리프 없이 평평함	니들 레이스

〈표 1〉 계속

시기	명칭	지역	특징	종류
17C	포앙 드 네쥬 (Point de neige) 포앙프라 (Point plat)	(이탈리아)	- 포앙 드 프랑스를 모방함 - 릴리프가 없어 두껍지 않고 평평하여 플랫 레이스(flat lace) 라고도 부름	니들 레이스
18C	아랑송 레이스 (Alençon lace)	알랑송 (프랑스)	- 육각형의 메시 그라운드 - 꽃문양 등 식물모티브 - 릴리프(relief, cordonnet) 장식	니들 레이스
	아르장탄 레이스 (Aregeantan lace)	아르장탄 (프랑스)	- 알랑송 레이스와 유사한 특징	니들 레이스
	샹티 레이스 (Chantilly lace)	프랑스	- 샹틸리 레이스라고도 부름 - 검은색의 견사 사용 - 육각형의 메시 그라운드 - 꽃, 꽃바구니, 과일, 리본 모티브 등 - 김프(gimp)장식 - 얇고 섬세함	보빈 레이스
	릴 레이스 (Lille lace)	프랑스	- 연속으로 제작 - 육각형의 메시 그라운드 - 단조로운 식물 모티브 - 직선적 가장자리 - 두꺼운 리넨사로 김프(gimp) 장식	보빈 레이스
	발랑시엔느 레이스 (Valenciennes lace)	프랑스	- 연속으로 제작 - 19세기에는 불연속으로도 제작 - 사각형, 원형, 다이아몬드형의 메시 그라운드 - 양식화된 꽃, 덩굴풀, 아네모네, 튜립, 카 네이션 모티브 등 - 김프(gimp) 없음	보빈 레이스
	브리셀 레이스 (Brussels lace)	벨기에	- 불연속으로 제작 - 육각형의 메시 그라운드 - 꽃, 식물 등의 섬세한 모티브 - 김프(gimp)장식	보빈 레이스
	메클린레이스 (Mechlin lace)	벨기에	- 연속 보빈레이스 - 육각형, 또는 원형의 메시 그라운드 - 꽃, 식물 모티브 - 김프(gimp) 장식	보빈 레이스
방슈레이스 (Binche lace)	벨기에	- 연속으로 제작 - 일반적으로 5cm 폭이 많음 - 작은 모티브로 된 그라운드 - 직조한 것 같은 모티브가 주를 이룸 - 매우 섬세한 꽃, 아라베스크, 동물, 인물 모티브 - 김프(gimp)없음	보빈 레이스	

〈표 1〉 계속

시기	명칭	지역	특징	종류
18C	호니톤 레이스 (Honiton lace)	영국	- 불연속으로 제작 - 육각형의 메시 그라운드 - 19세기 중반에는 니들로 바를 만들어 연결 - 19세기 말 브뤼셀 레이스처럼 두꺼운 린넨 실로 김프(gimp) 장식	보빈 레이스
	베드퍼드셔 레이스 (Bedfordshire lace)	영국	- 연속으로 제작 - 피코와 탈리, 끈으로 구성 - 모티브가 강조된 귀피르 레이스	보빈 레이스
	버킹엄셔 레이스 (Buckinghamshire lace)	영국	- 릴 레이스 처럼 필링을 넣은 로즈 그라운드 - 릴 레이스와 비슷한 외관으로 잉글리시 릴 이라고도 부름 - 직조 한 것 같은(clothwork) 기법으로 만든 모티브 - 두꺼운 리넨사로 김프(gimp) 장식 - 폭을 좁게 만들므로 베이비 레이스라고도 부름	보빈 레이스
19C	바이유 레이스 (Bayeux lace)	프랑스	- 샤틀리 레이스와 릴 레이스 기법을 혼합 - 부분으로 만들어 조합	보빈 레이스
	아랑손레이스 (Alencon lace)	프랑스	- 18c 아랑손 레이스가 다시 부활함 - 흰 말총을 사용하여 릴리프를 강조	니들 레이스
	샤틀리 레이스 (Chantilly lace)	프랑스	- 19세기 말까지 유행 - 흑색의 견레이스 장방형과 삼각형의 스퀘어와 솔, 양산을 만들	보빈 레이스
	클루니 레이스 (Cluny lace)	프랑스	- 1860년대에 등장 - 굵고 강한 면사나 리넨사 사용 - 연속으로 제작 - 기하학적 모티브 - 모티브가 강조된 귀피르 레이스	보빈 레이스
	브뤼셀 아플리케 레이스 (Brussels appliqué lace)	벨기에	- 보빈기법과 니들포인트기법으로 만든 모티브를 기계제 네트에 아플리케	보빈, 니들, 기계제의 혼합
	포앙 드 가즈 (Point de gaze)	벨기에	- 1850년대~ 1차세계대전 까지 - 니들기법으로 만든 꽃 모티브를 얇은 기계제 그라운드에 아플리케	니들, 기계제의 혼합

정리 제시한 것이다.

8) 주요 기계제 레이스(Machine made lace)의 출현

레이스의 대량 생산을 위하여 니들포인트레이스와 보빈레이스를 모방할 수 있는 기계 개발을 위한 노력이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이루어졌다. 레이스 머신과 기계제 레이스 생산에 기여

한 주요 국가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이다. 특히 영국의 노팅엄(Nottingham)은 레이스 머신 및 기계제 레이스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주요 도시이다.

다음은 18세기 중엽 이후 출현한 주요 레이스 머신과 기계제 레이스를 제시하였다.

① 18세기

• 스토킹 프레임(Stocking frame)

1589년 영국의 노팅엄셔(Nottinghamshire)에서 윌리엄 리(William Lee)는 양말 짜는 기계인 스토킹 프레임을 발명하였다. 이것은 한 울의 실을 수평으로 고리를 엮어 만든 위편성물을 짜는 기계이다.

스토킹 프레임으로 레이스의 외관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었는데, 1769년에 이르러 노팅엄의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스토킹 프레임에 나무로 만든 실린더를 사용하여 실을 하나의 바늘로부터 다른 바늘로 트랜스퍼(transfer)하여 육각형 메시(hexagonal mesh)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사각형의 메시지를 만들었으며, 1780년에는 홈즈(Holmes)와 함께 기계제 메시 위에 손으로 자수하여 문양을 만든 기계제와 수공자수를 혼합한 레이스를 판매하였다(DATS & V&A, 2008; Edward & George, 1948).

• 와프 프레임(Warp frame)

1775년에는 경편기인 와프 프레임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스토킹 프레임과는 다르게 직물의 경사처럼 배열된 다수의 경사를 바늘로 수직방향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고리를 엮으면서 만든 경편성물을 짤 수 있는 기계였다. 1795년에는 네트를 와프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Edward & George, 1948).

② 19세기

• 보비넷 머신(Bobbinet machine)

1809년에 영국의 레스터셔(Leicestershire)에서 존 히스코트(John Heathcoat)에 의해 보비넷 머신이 발명되었다. 보비넷 머신은 보빈레이스 구성 원리를 모방하여 캐리지에 수직 플랫폼 라운드

보빈(flat round bobbins)을 사용하여 릴 레이스의 메시 그라운드와 같은 네트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고 한다(DATS & V&A, 2008).

따라서 19세기 초에는 보비넷 머신 등으로 만든 기계제 네트를 그라운드로 하여 아플리케 기법으로 모티브를 만든 캐리크마크로스(Carrikmacross)와 같은 레이스가 유행하였다.

• 푸셔 머신(Pusher machine)

푸셔 머신은 1812년 제임스 마트(James Mart)와 사무엘 클라크(Samuel Clark)가 히스코트의 보비넷 머신을 변형시켜 만들었다. 머신을 관통하는 막대기들이 캐리지를 밀어낸다(push)고 하여 푸셔 머신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프랑스의 조셉마리 자카르(J. M. Jacquard)가 문직물을 짜기 위해 발명한 펀칭카드시스템인 자카드장치를 푸셔 머신에 부착하여, 1839년에는 네트 그라운드에 모티브가 있는 레이스를 만들 수 있었으나, 아웃라인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손으로 만들거나 자수기계로 수놓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국의 노팅엄에서는 21세기 초에 푸셔 머신으로 레이스를 만드는 것을 중단하였으나 프랑스에서는 현재도 푸셔 머신으로 레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DATS & V&A, 2008).

• 리버 머신(Leavers machine)

리버 머신은 1813년 영국의 노팅엄에서 존 리버스(John Leavers)가 히스코트의 보비넷 머신을 변형하여 만들었다. 오리지널 리버 머신은 네트 그라운드 만을 만들 수 있었는데, 1841년부터는 자카드 장치를 부착하여 큰 모티브와, 아웃라인, 네트 그라운드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었다.

리버 머신으로 만든 레이스를 리버 레이스(Leavers lace)라고 부르는데 섬세함이 수공 레이스에 뒤지지 않으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기계제 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

리버 레이스의 주요생산지는 영국의 노팅엄, 프랑스, 일본 등이다(DATS & V&A, 2008).

• 라셀 머신(Raschel machine)

라셀 머신은 대표적인 경편기 중 하나로 1859년 독일의 바푸스(A. Barfuss)가 와프 프레임을 응용하여 개발하였다. 라셀 편기라고도 부르며 1870년대 자카드 장치를 부착하여 모티브까지

완벽하게 짜낼 수 있게 되었다.

라셀 머신은 리버 머신 보다 빠르게 작업 할 수 있으며 나일론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기계제 레이스의 많은 양이 라셀 머신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그러나 섬세함과 아름다움은 리버 레이스 보다 뒤지는 경향이 있다(DATS & V&A, 2008).



①라셀레이스(Raschel lace) ②리버 레이스(Leavers Lace)
 <그림 16> 라셀 레이스와 리버 레이스의 비교
 (출처: Sakae Lace. (2007). Sakae Lace Co.,Ltd.
http://www.sakae-lace.co.jp/en/philosophy_parts.html)

<그림 16>은 하이 그레이드(high grade)의 라셀 레이스와 리버 레이스를 비교한 것으로 리버 레이스의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 핸드 엠브로이더리 머신(Hand embroidery machine)

핸드 엠브로이더리 머신은 1828년에 프랑스의 뮐루즈(Mulhouse)에서 조수아 헤일만(Joshua Heilman)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이 자수 머신은 한 가닥의 실과 양쪽 끝이 뾰족한 바늘 그리고 직물을 고정하는 핀서(pincer)를 사용했다. 핀서가 잡고 있는 원단을 바늘이 통과하여 미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팬터그래프(pantograph)는 손으로 작동하였다.

핸드 엠브로이더리 머신으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자수를 완벽하게 카피할 수 있으며, 기계제 네트 위에 자수한 툴 레이스와 약품에 녹는 원단에 자수한 케미컬 레이스(chemical lace) 등을 만들 수 있다(DATS & V&A, 2008).

• 시플리 엠브로이더리 머신(Schiffli embroidery machine)

시플리 엠브로이더리 머신은 1865년 스위스의 아이작 그로블리(Isaac Groebli)에 의해 발명

되었다. 이 자수 기계에는 윗실과 밑실 두 가닥의 실을 사용하여, 윗실이 밑실을 감고 있는 복을 돌면서 밑실을 윗실 사이의 고리에 연결하여 구성하는 방식의 로크 스티치(lock stitch)를 만들었다. 핸드 엠브로이더리 머신처럼 초기의 시플리 엠브로이더리 머신의 바늘의 움직임은 손으로 작동하는 팬터그래프(pantograph)로 지시되었으나 현재에는 컴퓨터에 의해 작동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툴 레이스, 아일랜드 자수레이스, 케미컬 레이스와 같은 대부분의 기계제 자수 레이스는 시플리 엠브로이더리 머신으로 만들며, 크로셰 레이스도 재현 할 수 있다.

영국의 노팅햄과 독일의 플라우엔(Plauen), 스위스의 세인트 갈렌(St. Gallen)은 기계제 자수 레이스의 생산지로 유명하다(DATS & V&A, 2008).

• 바르멘 머신(Barmen machine)

1890년대에 독일에서 브레이딩 머신(Braiding machine)을 변형하여 만든 바르멘 머신이 개발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토손 레이스는 보빈레이스 가운데 가장 단순한 레이스에 속하는데 바르멘 머신으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DATS & V&A, 2008). 기계제 토손 레이스는 수공 토손레이스와 마찬가지로 폭이 좁은 테이프 형태로 생산된다.

IV. 레이스의 범주와 분류체계

앞서 역사적으로 레이스를 고찰한 자료와 그 외 문헌 등을 분석하여 레이스의 범주와 정의를 재고찰하고 분류체계를 세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레이스의 범주와 정의

오픈워크 장식이 있는 비치는 소재인 레이스의 구성요소는 모티프(motif)와 그라운드(ground)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티프는 뾰뾰하게, 그라운드는 성글게 구성된다. 그라운드는 메시 그라운드(mesh ground)와 바 그라운드(bar

ground)로 나눌 수 있다. 메시 그라운드에는 네트 따라서 본 연구자는 ‘레이스란 수공이나 기계로 실을 엮거나(plaiting), 꼬거나(twisting) 고리를 만들거나(looping), 매듭짓거나(knotting), 자수(embroidery)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티브(motif)와 그라운드(ground)를 구성한 오픈워크 장식이 있는 소재’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2. 레이스의 분류체계

영국의 레이스 길드협회(The lace guild, 1997)는 주요 수공 레이스는 보빈레이스와 니들레이스이며, 그밖에 크로셰, 니티드 레이스, 마크라메는 물론 현대에 개발된 자수레이스에 해당하는 테이프 레이스와 데코레이드 네트 역시 수공 레이스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또한 수공 레이스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테크닉을 제시하고 있는 ‘lynxlace.com’(2012)은 (net) 또는 툴(tulle) 등으로도 부른다. 바 그라운드는 귀피르(guipure)라고도 부르며, 바 그라운드로 이루어진 레이스는 모티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레이스를 귀피르 레이스(Guipure lace)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티브 안쪽의 공간은 장식적인 스티치로 구성하는데 이런 공간을 필링(filling)이라고 한다. 모티브 밖 또는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있으면 그라운드이고 모티브 안쪽의 공간은 필링으로 보는 것이다(Lorelei Halley, 20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고찰한 주요레이스 기법 중 네팅과 스프랭은 레이스의 모

티브를 만들기 보다는 그라운드를 만드는데 적합한 기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레이스의 종류를 지칭하는 범주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물을 바탕으로 하여 오픈워크와 자수 기법으로 제작하는 오픈워크 자수레이스는 레이스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레티첼라와 같은 오픈워크 자수직물은 진정한 레이스라고 불리는 니들포인트레이스의 기본이 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모티브와 그라운드를 구성할 수 있어 레이스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오픈워크 자수레이스를 기계로 모방하기 위해 개발된 기계제 자수레이스 중 하나인 아일랜드자수직물이나 네트에 기계 자수하는 툴레이스 역시 본 연구자는 레이스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수공 레이스를 보빈 레이스와 니들 레이스, 엠브로이더리 레이스, 니팅 레이스, 크로셰, 태팅 등으로 분류제시하고 있다.

시드니 박물관의 Rosemary Shepherd(2003)는 수공 레이스로는 자수레이스, 니들메이드 레이스, 보빈레이스, 니들과 보빈기법을 혼합한 믹스드 레이스, 너티드 레이스, 니티드 레이스, 크로셰 레이스, 우븐 레이스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계제 레이스에는 라셀 레이스, 리버 레이스, 자수 레이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연구자는 사용되는 도구와 기본 구성 원리의 특징에 따라 레이스의 분류체계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레이스의 분류체계

분류	세분류	명칭	도구	구성방법
수공 레이스	보빈레이스 (Bobbin lace)	연속 기법 Torchon, Bedfordshire, Flandre, Binche, Chantilly, Lille, Valenciennes, Clunny lace	보빈세트 펠로우 핀 실 도안	-펠로우 위에서 보빈에 감긴 여러 가닥의 실을 핀을 꽂아 고정하면서 트위스팅, 플레이팅하여 만들 -레이스를 연속하여 제작하는 연속기법과 부분을 만든 후 연결하여 제작하는 불연속기법이 있음
	불연속 기법	Honiton, Milanese, Bayeux lace		

<표 2> 계속

분류	세분류	명칭	도구	구성방법	
수공 레이스	니들 기법	Punto in aria Gros point Point de France Point de neige Alencon Aregeantan lace	바늘 실 도안	기본 바탕 직물 없이 실과 바늘만으로 두꺼운 양피지 등에 기초가 되는 선을 바느질하고 기초선을 만든 실을 지지대로 하여 공중에서 다양한 버튼홀 스티치로 모티브와 그라운드를 만든 후 양피지와 기초실을 제거함	
		Puncetto	바늘, 실	바늘에 실을 꿰 후 공중에서 매듭을 만들며 레이스 만듦	
	기타 니들 기법	Sol Laces, Tenerife, Nanduti, Hvar	작은 원형 쿠션, 또는 원형틀 실, 바늘	-작은 원형 쿠션이나 틀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핀을 꽂은 후, 대각선에 위치한 핀에 실을 걸러 모든 실이 중심을 지나도록함 -걸어 맨 실위에 여러 가지 스티치를 하여 원형, 사각형, 육각형 등의 모티브를 만든 후 이를 연결함 -원심적인 디자인으로 솔레이스 즉 태양의 레이스라고도 부름	
		Reticella, Hedebo, Hardanger, Broderie Anglaise	자수틀, 가위, 실, 바늘	직물의 경, 위사의 일부를 뽑거나 (drawn), 컷트(cut)하여 공간을 만들고 가장자리는 울이 풀이지 않도록 버튼홀 스티치로 감치고 공간부분에는 실을 걸어 다양한 버튼홀스티치로 모티브를 만듦	
	자수레이스 (Embroidery lace)	네트에 자수 기법	Filet lace	셔틀 자수틀 실, 바늘	매듭기법으로 사각형 네트를 만든 후 다닝스티치로 자수하여 모티브를 만듦
			Tulle lace	자수틀, 기계제네트 실, 바늘	기계제 네트에 손자수하여 모티브를 만듦
Tape lace			기계제네트 테이프 실 바늘	기계제 네트위에 테이프를 바늘에 꿰 실로 고정하여 모티브를 만듦	
너티드레이스 (Knotted lace)	너트 기법	Macrame	실	굵은 기초실에 여러 가닥의 실을 걸어 손으로 묶고, 매듭짓고, 트위스팅하여 만듦 아래단에 프린지장식이 있음	
		Tatting	실 태팅셔틀	배 모양의 셔틀에 감긴 한 가닥의 실을 루프만들기와 매듭짓기를 하여 제작	
		Needle tatting	실 긴바늘	셔틀 대신 긴바늘을 사용	

〈표 2〉 계속

분류	세분류	명칭	도구	구성방법	
수공 레이스	루프 네팅 기법	Crochet	코바늘 실 도안	코바늘로 루프를 구성하여 제작 아이리쉬 크로셰는 입체적인 경향이 있고 불연속으로 제작하기도 함	
		Irish crochet			
	기타 크로셰 기법	Hairpin crochet	헤어핀 코바늘 실 도안	헤어핀에 실을 걸고 코바늘뜨기로 고정	
레이스니팅 (Lace knitting)	니팅 기법	Lace knitting	대바늘 실 도안	2개 이상의 대바늘을 사용하여 루프를 구성하여 제작	
기계 레이스	라셀레이스 (Raschel lace)	경편 기법	Raschel lace	라셀경편기 실	라셀 경편기로 제작
	리버레이스 (Leavers lace)	기계보빈 기법	Leavers lace	리버 머신 실	리버 머신으로 제작
	기계제 자수레이스 (Machine embroidery lace)	자수 기법 등	Tull lace	기계제 틀 자수기계 실	기계제 틀에 기계 자수함
			Eyelet embroidery lace	직물 실 자수기계 편칭기계	직물에 자수한 후 편칭하여 오픈워크 장식을 만들
		Chemical lace	녹는 원단 실 자수기계	녹는 원단에 기계자수한 후 바닥천을 녹임	
토손레이스 (Torchon lace)	기계보빈 기법	Tochon lace	바르멘 머신 실	바르멘 머신으로 제작	

V. 결론

본 연구는 레이스의 기원과 주요 레이스 기법의 출현 시기 및 발달과정 등을 고찰하여 레이스의 범주와 정의를 재규정하고, 구성기법의 특징 등에 따라 주요 수공 레이스와 기계제 레이스의 분류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스의 기원은 어망과 수렵망을 만드

는데 사용한 ‘네트(net)만들기’와 파손된 의복을 아름답게 재생하기 위해 고안한 ‘오픈워크 장식이 있는 자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요 레이스 기법의 출현시기 및 발달과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대에 출현한 레이스 관련 패브릭은 네트, 오픈워크 장식이 있는 자수직물, 스프랭, 마크라메, 보빈레이스 등이었다.

- 중세 전후기에 출현한 것으로 추측되는 것으로는 필레 레이스, 크로셰 등이었다.

- 16세기 말에는 오픈워크 자수기법으로 만든 레티첼라를 바탕으로 니들포인트레이스가 개발되었다.

- 많은 학자들은 니들포인트레이스와 보빈레이스를 진정한 레이스(true, pure lace)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16, 17, 18세기에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내놓으며 전성시기를 이루었다.

- 19세기 산업혁명이후로는 다양한 레이스 머신이 발명, 개발되어 보빈 레이스와 니들포인트레이스를 모방하였다. 완전한 모양의 레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로는 경편기인 라셀 머신, 다수의 보빈부품을 장착한 리버 머신, 재봉틀의 원리를 활용한 핸드 엠브로이더리 머신과 시플리 엠브로이더리 머신 그리고 브레이딩 머신을 발전시켜 만든 바르멘 머신 등이었다.

- 라셀 머신으로는 라셀 레이스, 리버 머신으로는 리버 레이스, 핸드 엠브로이더리 머신으로는 툴 레이스, 아일릿자수 레이스, 케미컬 레이스, 시플리 엠브로이더리 머신으로는 툴 레이스, 아일릿자수 레이스, 케미컬 레이스, 크로셰 레이스, 바르멘 머신으로는 토손 레이스 등이 제작되었다.

셋째, 레이스의 범주와 정의에 관해 재규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레이스는 일반적으로 그라운드와 모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레이스 기법 중 네팅과 스프랭 기법은 모티브 보다 그라운드를 만드는 데 적합한 기법으로 본연구자는 레이스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 오픈워크 자수직물은 많은 학자들이 레이스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자는 16세기 중엽에 유행한 레티첼라와 같은 오픈워크 자수직물은 진정한 레이스(pure, true lace)라고 불리는 니들포인트레이스의 기본이 된 것으로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모티브와 그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어 레이스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오픈워크 자수직물을 기계로 모방한 아일릿자수 직물 역시 레이스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 레이스란 '수공이나 기계로 실을 엮거나(plaiting), 꼬거나(twisting) 고리를 만들거나(looping), 매듭짓거나(knotting), 자수(embroidery)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티브 (motif)와 그라운드(ground)를 구성한 오픈워크 장식이 있는 소재'로 재정의하였다.

넷째 레이스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수공 레이스는 보빈레이스, 니들포인트레이스, 자수레이스, 너티드레이스, 크로셰레이스, 니팅레이스로 분류제시하였다.

- 기계제 레이스는 라셀레이스, 리버레이스, 기계제자수레이스, 토손레이스로 분류하고 기계제자수레이스는 툴 레이스, 아일릿자수 레이스, 케미컬 레이스 등으로 세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공레이스와 기계레이스의 구성기법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추후 주요 레이스 구성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범서희. (2010). 크로셰(Crochet)기법을 응용한 고부가가치 패션디자인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0(8), 29~37.
- 보빈레이스. (2014). 두산백과. 자료검색일 2014. 4.5.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2548&cid=40942&categoryId=32093>
- 안영무. (2004). *직물학*, 서울: 수학사.
- 염영숙. (2010). *신소재를 응용한 접시문양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02). 유럽에서의 레이스의 변천과 활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19~30.
- 이순홍. (2003).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20~46.
- 임영자, 권진. (2004). 조선시대 복식의 니트 기법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4(1), 23~36.
- 최현미. (2007). *현대여성 패션에 나타난 레이스포현을 중심으로 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프라이임 영한사전 (3rd ed.). (1992). 서울: 두산출판.
- About Lace. (2007). 자료검색일 2014. 2. 10. 자료

- 출처 <http://www.kuboriki.com/en/lace.html>
- Antwerp lace. (2014). Wikipedia. 자료검색일 2014. 2. 20.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Antwerp_lace
- Bridget M. Cook. (1988). *The Torchon lace Work Book* New York: St. Martin's Press.
- Crochet. (2014). Wikipedia. 자료검색일 2014. 3. 20.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Crochet>.
- DATS & V&A. (2008). Identifying Handmade and Machine Lace. 자료검색일 2014. 2. 15. 자료출처 <http://www.dressandtextilespecialists.org.uk/Lace%20Booklet.pdf>
- Edward L. Golec, George G. Armstrong, Jr.(1948). Leaver Lace, American Lace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 Eirian Short (1979). *Introducing Macrame*. Batsford Ltd.
- Jackson F. Nevill. (1900). A History of Hand-Made Lace. Published by L. Upcott Gill., London.
- Egyptian Coptic netting lace. (2014). Egyptian lace design 500. 자료검색일 2014. 3. 6. 자료출처 <http://www.pinterest.com/pin/84724036710201383/>
- Filet lace. (2014. 8). Wikipedia. 자료검색일 2014. 7. 1.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t_lace.
- Jennifer Harris. (1991). *Textile 5000 Years*.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 Kax Wilson.(2000). *A History of Textile* (박남성, 차임선 역). 서울: 도서출판 예경. (원저 1979 출판)
- Lace. (2007). 자료검색일 2014. 4. 6. 자료출처 http://www.geocities.ws/step_through_time/a_step_through_time_lace.html
- Lorelei Halley. (2012.7). Make Lace, Learn Lace Making. 자료검색일 2014. 4. 7. 자료출처 <http://lynxlace.com/>
- Macramé. (2014). Wikipedia. 자료검색일 2014. 4. 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Macramé>
- Nicolette Cook. (2013.7). An Art Conservator's Journal. 자료검색일 2014. 5. 3. 자료출처 http://insidetheconservatorstudio.blogspot.kr/2013_07_01_archive.html
- Peter the knotter. (2012. 3). A brief History of Macrame. 자료검색일 2014. 2. 11. 자료출처 <http://macramecollective.com/news/?p=553>.
- Rosemary Shepherd. (2003). *Lace classification System*, powerhouse Museum, Sidney.
- Sakae Lace. (2007). SakaeLace Co.Ltd. 자료검색일 2014. 4. 20. 자료출처 http://www.sakae-lace.co.jp/en/philosophy_parts.html
- Samuel L. Goldenberg (1904). *Lace its origin and history*, Brentano's new york.
- Santina M. Levey, Patricia C. Payne. (1983). Le Pompe(1559): Patterns for Venetian Bobbin Lace. Ruth Bean Farmhouse, Carlton, Bedford, England.
- Sprang. (2014). Wikipedia. 자료검색일 2014. 3. 3. 자료출처:<http://en.wikipedia.org/wiki/Sprang>.
- The Lace Guild. (1997). 자료검색 2014. 5. 25. 자료출처 <http://www.laceguild.org/guild/who.html>
- Torchon lace. (2014). Wikipedia. 자료검색일 2014. 3. 25.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Torchon_lace